

# 石 油 断 想

또 한 해를 보내며

## 石油節約의 意味

崔 錫 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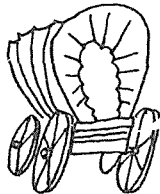
〈韓國石油開發公社 理事〉

에너지문제를 이야기할 때에는 석유를 빼놓을 수 없고, 석유문제를 생각할 때에는 우리의 독자적인 의지만으로 다스릴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같은 것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세계석유시장의 추세에 따라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油價 40달러時代를 걱정하면서 전전공공했던 기억이 새롭건만, 올해에는 OPEC의 공식가격이 29\$線으로 대폭 인하되었고, 공급과잉현상도 계속되고 있어서 어쩔든 각박하기만 했던 우리의 석유인심을 훈훈하게 녹여주고 있음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국제원유값이 오르든 내리든, 또는 지금처럼 공급과잉으로 몇 안되는 精油社들이 과당경쟁을 벌이는 상황에 있든 아니든, 석유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취해



야 할 최선의 방법은 뭐니 뭐니해도 석유를 아껴써야한다는 자세로 일관해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지난 7월 日本석유업계 구라

과 실정과악반의 귀국보고서에 의하면, 영국, 프랑스, 서독 등 EC국가들은 최근 原油精製處理 능력의 감축·통합을 시도하여 잉여처리능력처분과 아울러 重質原油의 처리시설확장으로 中質製品 생산을 意圖하고 있으며, 주유소의 감축을 비롯한 분배시설의 통합운영을 통한 판매비의 절감을 도모하는 등의 自救策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고 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석유의 고배가 다소 풀려서인지, 아니면 모처럼의 市場自律化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意識水準 때문에서인지는 몰라도 오히려 주유소를 비롯한 유통업체의 수가 雨後竹筍처럼 증가되어 지승자박의 경쟁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이는 마치 석유업계가 소비자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보다도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 귀중한 석유제품의 消費促進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인상마저 감추기 어려운 느낌을 갖게 한다.

물론 석유절약으로 생산이 줄고, 유통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며, 가정생활마저 어렵게하는 결

과가 초래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생산과 수출과 일정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면서 석유를 중심으로한 에너지의 投入量을 가급적 줄일 수 있는 지혜가 동원될 때, 石油節約의 의미가 더욱 돋보일 것이라고 믿는다 ,

잠정적이거나 석유사정이 좀 나아졌다고 해서 우리의 관심이 소홀해 지거나, 소비자들의 자세가 흔들린다면 그것은 국가적인 손실과 직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석유에 관한 한, 항상 국가경제적인 입장에서 개개인이 끊임없이 절약을 생활화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석유에 있어서만은 우리 모두가 貧者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생산적이 아닌 석유의 사용을 가급적 줄여 나가는 방향에서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과당경쟁으로 인한 유통상의 여러 문제점들도 하루 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衆智를 모아서, 우리도 여건은 다르지만 선진국들이 취하고 있는 좋은 점들을 표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금하기 어렵다.

이렇듯 석유를 소중히 생각하고 절약정신을 발휘한다든가, 현실적으로 流通상에서 빚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개선해 나간다는가 하는 일들은 결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지만, 꾸준히 노력만 한다면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것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이 짧은 글을 통해서 평소의 생각의 일단을 밝혀 보는 것이다.

올해 油開公을 중심으로 전국 유통단체별 실태조사를 통한 석유제품유통구조개선방안 마련

을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연구가 아무쪼록 보람있는 열매를 거둘 수 있어서 우리 나라 석유

시장의 새로운 분위기 조성에 一助가 될 수 있기를 期待하면서...\*

## 또 한 해를 보내며

# 石油를 아껴 씬시다

李 東 根

〈KIET 責任研究員〉

우 리 나라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그 제품의 소비를 줄이자는 광고를 하고 있는 품목으로는 담배와 石油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두 광고 사이에는 커다란 내용상의 차이



가 있는데, 그것은 전매청의 광고는 「지나친 흡연을 삼가하자」는 아주 소극적인 것인데 비해 精油会社들의 광고는 「한방울의 石油라도 아껴 쓰자」는 대단히 적극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금년도 국제경제에서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은 OPEC (石油輸出機構)가 창설 이후 처음으로 公示價를 배럴당 5 달러나 인하하였다는 것일 것이다. OPEC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OPEC産 石油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소했다는 점이다. 1979년에 3,100만 배럴에 달했던 OPEC의 하루 産油量이 1982년에는 1,900만 배럴로 줄어들었으며, 금년에 들어와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石油수요감소가 단지 최근 수년간의 景氣沈滯 때문이거나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1973년 제1차 석유파동 이후 석유소비국들이 꾸준히 추진해 온 石油, 특히 輸入石油의 소비를 줄이려는 정책의 결과이다. 지난 70년대의 급격한 油價상승에 대응하여 석유소비국들은 ① 石油소비절약, ② 에너지 사용 效率提高, ③ 代替에너지 사용증대, ④ 国内에너지資源의 개발 등을 통해 石油輸入을 줄이려고 노력해 왔다. 지난 1979년에 3,550만 배럴에 달하였던 세계 전체의 하루 石油수출량이 지난 1982년에는 2,550만 배럴로 1,000만 배럴이 줄어들었는데, 이 減少分の 1/3만이 景氣沈滯에 따른 석유소비감소 때문이고, 나머지 2/3가 上記한 바와 같은 석유소비국들의 石油消費節減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난 70년대에 OPEC이 油價를 것처럼 급격하게 인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도 역시 석유소비국들이다.

지난 70년대초까지 국제석유시장은 이른바 石油메이저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이들은 産油國정부에게 일정액의 租稅料만 지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産油量을 결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石油메이저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당시로서는 거의 무진장한 것으로 보였던 석유를 가능한 한 많이 팔기를 바랐으며, 이를 위해 석유가격을 대단히 낮게 책정하였다.

이러한 石油메이저들의 薄利多賣政策은 石油消費國들의 석유소비를 조장시켜 石油消費國經濟의 석유의존도를 크게 深化시켰다. 그 결과 OPEC이 지난 70년대에 中東戰의 발발로 야기된 石油의 공급부족을 틈타 油價를 급격히 인상시켜도 석유소비국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비록 단기적으로는 OPEC을 비롯한 産油國들이 油價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석유소비국들의 에너지정책이 産油國들의 油價政策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약 60억 달러어치에 달하는 2억 배럴의 石油을 수입해 오고 있다. 만약 우리 나라가 石油消費節減노력을 통해 석유소비를 10% 정도 줄이고, 이러한 노력이 다른 석유소비국들의 石油消費節減노력과 합해져서 油價를 배럴당 5 달러 하

락시킨다면, 우리나라는 연간 약 15억 달러의 石油輸入代金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한방울의 石油라도 더 팔수록 이익이 늘어나는 精油會社들이

「한방울의 석유라도 아껴쓰자」는 구호를 내세우고 凡國民的인 석유소비절약운동에 앞장 설 수 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 또 한 해를 보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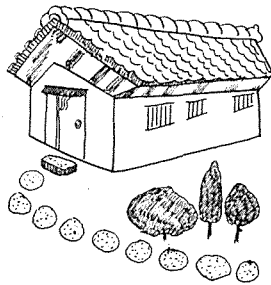
# 注油所 化粧室 文化

柳 龍 澤

(三一社·총무과장)

우 리 생활 가운데 손님이 찾아 오기로 되어 있으면, 손님을 맞이한다고 갑작스레 집안을 정리한다, 청소를 한다 하면서 흔히들 큰 부산을 떤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일은 버릴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남에게 구애됨이 없이 자신을 뽐뽐하고 자

장되어 있는 것을 본다. 수세식 주유소화장실 덕분에 우리의 「화장실문화」가 선진국대열에 들지 않았나 싶어 다행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실제로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람의 고충은 말이 아니다. 아무리 선진국수준의 화장실을 만들어 놓아도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수준이 후진국수준을 맴돌고 있으니 말이다. 결국 우리의 화장실문화의 실속은 아직도 선진국수준에는 요원한 것 같다. 우리의 수도 서울의 경우를 살펴보자. 24시간동안 화장실을 개방하고 있으니 갑자기 불일(?)이 있는 분은 주유소를 찾아가면 해결되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주유소를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매일 세면대에 걸어 놓은 타올이 없어지고, 화장실휴지는 통째로 사라지고 세수비누도 없어지고, 심지어는 화장실의 사용법을 몰라 수세식 좌변기에 신문지를 몰아 넣지를 않나, 세면대 수도스위치를 뽑아 가질 않나, 참으



신있게 나타낼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 忠實을 기하여 걸치장보다는 실속을, 선전보다는 無言의 실력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IPU, ASTA와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덕택에 요사이 주유소 화장실은 고급주택이나 아파트의 화장실 못지 않게 잘 단

로 한심한 일이다. 그렇다고 당초 목적과는 달리 심야에는 문을 잠궈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유료 화장실로 하여 사람을 화장실문 앞에 고정배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말이다. 어디 그뿐인가? 유행만을 좇아 옷을 입고, 실속있는 적은 음식점보다 호텔식당을 즐겨 찾고, 실용성있는 집보다 바깥치장만 요란하게 한 집을 짓고 살려고 한다. 기업은 가급적 좋은 외제차를 굴리고, 대형 빌딩도 짓고, 대문짝만한 신문광고를 하며, 문어발식으로 부실사업체라도 흡수하여 그룹의 면모를 갖추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국가나 공공사회단체에서는 거창한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성장률을 수치로 밝히고 있다. 물론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동기의 하나는 남에게 자신의 경제력과 문화수준을 과시하는 데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주변 사람이나 거래상대가 자신의 외모에 따라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라면, 과시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사회대중이 가시적 효과를 통해서만 행정의 성과를 알아주는 것이라면 별 수가 없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유의 정당성은 여하간에 경제적으로 볼 때 비용도 많이 들고, 실속이 없으며, 여러가지 부작용을 수반한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인 일화를 소개해 본다. 중국인비단장사는 비단옷을 입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단옷을 입을 처지가 못 되서가 아니라 돈을 벌면 비단옷을 입기는 하되, 바깥에 비단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안에 비단을 댈다. 중국에는苛歛誅求가 있어 남에게

잘 산다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에서 보기도 자기 돈을 들이면서 바깥에 비단을 대어 남의 눈요기를 시키느니 보다는 자신의 살결에 부드러움을 주는 것이 보다 낫다는 생

각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자신에 충실하는 것이 자신의 질과 생활을 높이는 것임을 알려 주는 일화이다. \*

## 또 한 해를 보내며

# 복 많은 돼지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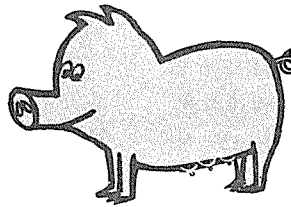
文 敏 植

(鮮京·에너지部)

**안** 증스럽게 매달려 있던 가로수의 마지막 잎새도 첫 눈과 함께 떨어진 지 오래고, 스산한 초겨울 바람을 타고 간혹 크리스마스 캐럴이 들리는 것을 보니 또 한 해가 지나가나 보다. 원유 관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

류제품가격 및 전력요금 인하로 새봄을 더욱 화창하게 해주었으며, 마두라 해역으로부터의 원유 및 천연가스 발견 소식은 산유국의 꿈을 한껏 부풀게 하였다. 또한, 과거 1, 2 차 오일 쇼크로 인해 원유 공급 부족 사태를 절감했던 우리로서는 금년 한 해는 지난 어느 때보다도 유리한 입장에서 소모 원유를 수월하게 조달할 수 있었다. 물론, LPG나 나프타 등 일부 석유 제품의 수급 불균형 사태란 좋지 않은 일도 있긴 하였지만...

그러나, 소모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현재 세계 원유 공급 사정이 일시 호전되었다고 해서 방심은 금물이다. 이제까지의 원유 공급위가 경제적인 요인보다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돌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中東으로부터의 원유 공급 불안정은 상존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는 사람으로서, 금년은 정말 국가로 보나 석유 관련업계로 보나 좋은 일이 더 많았던 한 해인 것 같다. 초봄과 함께 멀리 런던으로부터 석유 수출국 기구(OPEC) 사상 처음인 배럴당 5 달러의 石油價 인하 소식은 뒤이은 국내 유

□ 石油断想 □

에너지 소비 절약 및 효율성 제고는 물론 적극적인 국내 및 해외 유전 개발 정책의 추진으로 장기 안정적인 소요 원유의 독자적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내년에는 정말 우리 나라 영해에서, 아니면 우리 나라가 탐사·

개발하고 있는 해외 광구에서 원유가 평평 쏟아져 「中東」로부터의 원유 수입 의존도 감축 및 「원유 도입선 다변화」에 고심하는 분들이 「원유 수출선 다변화」를 위해 분망하길 바라본다.

끝으로, 복많은 돼지해를 보내

면서 그간 친절하고 성실하게 원유 도입 업무에 협조해 주시고, 유익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해 주신 大韓石油協會에 심심한 감사와 함께 우리 나라 정유 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해 본다. \*

□ 消費国動向 □

# IEA의 月刊石油市況報告書

세계 석유공급 및 수요는 현 4/4분기에 각각 4550만b/d, 4560만b/d로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IEA가 지난 12월 2일 발표했다. IEA는 이같은 수급균형이 現油價의 고수를 가능케 하고 있으며 OPEC油價体制의 어떠한 변화도 배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EA는 月刊石油市況報告書의 잠정통계에서 금년도 4/4분기 석유 수요를 이같이 작년同期에 비해 1.3% 오른 것으로 평가, 이는 先進諸国 특히 美国의 경기회복 및 기온降下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하면서 그중 OPEC의 석유수요는 3510만b/d로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IEA는 또한 세계석유 수요의 1983년도 전체평균은 4430만b/d로 작년의 4500만b/d보다 떨어진 것이나 내년에는 경제회복으로 인해 4510만b/d로 증가할 것이며 특히 1/4분기에는 4640만b/d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편 OPEC産油量은 4/4분기에 1820만b/d로 3/4분기의 1880만b/d, 작년同期의 1950만b/d보다 낮은 수준이며 금년도평균은 1730만b/d로 작년의 1880만b/d보다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내년 1/4분기의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내년 1/4분기의 OPEC산유량은 2030만b/d((NGL 포함), 내년평균 1890만b/d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반해 금년 3/4분기에 2,600만b/d, 작년 4/4분기에 2,520만b/d를 기록한 非OPEC산유량은 금년 4/4분기에 2,620만b/d로 오를 것이며 1983년 전체평균도 2,550만b/d로 1982년의 2,470만b/d보다 증가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1984년 전체평균은 2,620만b/d, 1/4분기만은 2,610만b/d로 예상되었다.

OPEC諸国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陸上備蓄油의 4/4분기 방출속도는 당초 추산한 20만b/d보다 훨씬 높은 80만b/d에 달하고 있다고 IEA가 평가했다.

IEA의 同報告書에 따르면 OECD의 陸上備蓄油는 내년 1월1일에 4億1,600만바렐 즉 1984년 1/4분기 소비기준으로 90日분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OECD의 陸上備蓄油는 금년초에 4億4,600만바렐(101日分), 금년 10월1일에 4億2,700만바렐(93日分)에 달했다.